

수능 원서 접수 시작 대리 접수 일부 허용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수능일은 11월17일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원칙적으로 수험생 본인이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코로나19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16일 '머니투데이'가 교육부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다. 수능 원서 접수처는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 지구가 다른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각각 1부 필요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험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등이다. 지난해까지 대리 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 대리 접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이다. 선택 영역 수가 5개, 6개인 경우 각각 4만2,000원,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진=news.mt.co.kr

상가 매매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가 매매가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1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국 상가 평균 매매가는 3.3㎡당 2,062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복합쇼핑몰, 주상복합상가, 단지 내 상가, 근린상가, 프라자상가, 오피스상가,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의 7개 상가 유형이 포함돼 있다.

상반기 3.3㎡당 전국 상가 평균 매매가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0년 상반기 1,719만원에서 같은 해 하반기 1,917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2,023만원을 기록해 2,000만원 선도 돌파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2,062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지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음에도 상가 매매가는 오름세가 지속된 것이다.

권역별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2020년 하반기부터 4개 반기 연속(2,288만→2,341만→2,433만→2,483만원) 올랐다.

고가 상업·업무용 부동산이 물려 있는 서울의 경우 3.3㎡당 상가 매매 가격이 2020년 상반기 2,831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3,875만원으로 4개 반기(2년)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다만 지방의 3.3㎡당 상가 평균 매매가는 작년 하반기 1,375만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283만원으로 떨어졌다.

사진=edaily.co.kr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한·일 통계 당국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40년이 되기 전에 유럽 국가보다 높아진다. 2040~2045년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고령국가로 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2019년 내놓은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서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2045년 37.0%까지 높아져 일본(36.7%)을 넘어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미 세계 1위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70~2018년 한국의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일본(2.9%)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런 와중에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은 2005년 출산율이 1.26명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20년 가까이 1.3~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1984년 2명대가 붕괴된 뒤 2018년엔 1명대마저 무너졌다. 현재는 0.8명 수준이다.



'고령인구의 고령화' 문제도 더 심화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고령인구 가운데 65~74세가 465만 명, 75~84세가 272만 명, 85세 이상이 78만 명으로 전체 고령인구 중 '젊은 노인' 비중이 57%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70년 33%로 낮아진다. 그만큼 경제 활력도는 떨어지고 노년층 부담도 가중되는 셈이다.

사진=nvp.co.kr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